

보도시점 2026. 6. 23.(화) 15:30 배포 2026. 6. 23.(화) 13:30

구 부총리, 에이전틱 인공지능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첨단부문 교육 확대 필요성 강조

- 첨단부문 교육을 확대하여 하반기 1,000명 이상 청년 인력 양성
- 양성된 인력을 다양한 분야와 매칭하여 입직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23일(화), 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현장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방문하고, 관계자 및 교육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도구를 선택·사용하며 실행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적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인공지능 활용 인재 양성 과정인 ‘코디세이 AI 네이티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AI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AI 대전환 및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첨단부문 교육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 부총리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훈련 관계자 및 교육생, 관련 기업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①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을 중심으로 첨단부문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하고, 하반기중 1,000명 양성을 목표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②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공공기관, 사회복지·사회연대경제 등 문제해결 수요가 있는 모든 분야와 매칭하여 청년의 입직까지 이어지도록 ③가용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케이(K)-뉴딜 아카데미, 청년도약 부트캠프,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 등

구 부총리는 아울러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수시채용 확산에 더해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4.29)」의 핵심 과제를 속도감있게 집행하는 한편, 신규 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 | | |
|-------|------------------|------------------------------|--------------------------|
| 담당 부서 | 민생경제국 민생안정지원단 | 책임자 | 팀 장 최은경 (044-215-2861) |
| | | 담당자 | 팀 장 심상진 (ssj75@korea.kr) |
| |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 | 책임자 | 사무관 황지현 (sk12@korea.kr) |
| | | 담당자 | 과 장 김태웅 (044-215-8530) |
| | | 사무관 박종운 (jwpark416@korea.kr) | |

